

광주시, 235억 투입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 설립

산자부 공모 선정... 빛그린산단에 5년간 최첨단 시험·평가·장비 구축

광주시가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전주기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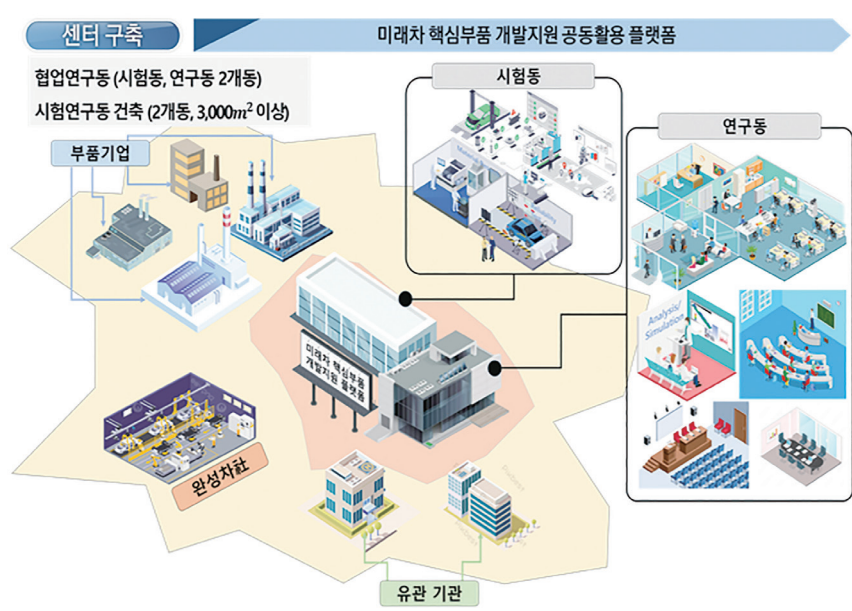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를 통해 ▲미래차 특화 전장부품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장비 도입 ▲첨단화·고도화된 고효율 부품의 기술지원 및 개발 시스템 구축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48V(볼트) 체계의 고성능 전

기자, 최첨단 센서 탑재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고효율 전장부품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역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기존 빛그린산단 내 구축된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개발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 대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와 연계,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부품 설계·개발부터 생산·인증까지 ‘전주기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미래차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에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과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광주 미래산업 기반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비 공모사업 유치는 미래차 부품개발을 선도할 핵심기반을 광주에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

역기업들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전남 1분기 경제 ‘침체’... 건설·수출·고용 동반 감소

건설수주 광주 88.9%·전남 63.9%↓... 경유·프로세스 등 광주·전남 수출 ↓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광주는 제조업 생산이 늘었으나 전남은 감소했다. 건설 수주, 수출, 고용 등은 양 지역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장비, 담배, 금속가공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1.8로 부동산 등에서 늘었으나 예술·스포츠, 여가 등에서 줄어 1.7% 감소했다.

소매액 판매액지수는 97.2로 1.8% 소

폭 증가했다. 대형마트(-6.6%), 백화점(-4.6%) 등은 판매가 줄었으나 전문소매점(3.4%)은 늘었다.

광주 건설수주액은 1386억원으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88.9% 급감했다. 수출은 38억1000달러로 기타 일반기계류(37.6%), 유선통신기기(635.9%) 등은 늘었으나 프레스와 컨트롤러(-15.5%), 승용차(-7.1%), 축전기·전지(-69.1%) 등이 줄어 10.8%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음식, 숙박시설 품목이 올라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76만5000명으로 광·제조업에서 늘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에서 줄어 1만66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9.9%로 40대에서 상승했으나 50대 등에

서 줄어 1.2%포인트(p) 하락했다.

실업자는 2만7700명으로 17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3%p 상승했다.

광주 1분기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4945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출은 20~29세(1795명)에서 두드러졌다.

1분기 전남 광공업생산지수는 100.3으로 기타 운송장비(47.6%), 식료품(5.0%), 고무 플라스틱(4.7%) 등은 증가했으나 1차 금속(-7.9%), 석유정제(-8.8%), 화학제품(-2.3%) 등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부동산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해 1.6%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93.6으로 0.5% 증가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2.4%),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2.4%)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1.9%), 대형마트(-3.6%)는 감소했다.

전남 건설수주액은 5528억원으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감소해 63.9% 급감했다. 특히 발주자별로 민간 부문에서 68.0% 감소했다.

전남 수출액은 100억7000만달러로 승용차(2만9914.5%), 비철금속(154.8%), 김(28.8%)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경유(-30.9%), 기타 석유제품(-29.3%) 등에서 감소해 19.3% 줄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으로 교통비, 음식·숙박비 등의 품목이 올라 2.2%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98만1600명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등에서 줄어 93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4.6%로 15~39세에서 상승했으나 40세 이상에서 줄어 0.5%p 하락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16명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로 나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안전지킴이, 환경정비사업 등 총 260개 사업에 516명을 선

광주시, 하반기 일자리사업 516명 모집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총 260개 사업... 19~23일 접수

발할 예정이다. 이 중 공공근로사업은 85개 사업에 13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5개 사업에 386명이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가점이 부여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 15~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선발기준 평가표에 의거해 희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오는 6월23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우인 기자

‘먹깨비’와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 맞손

신규가입자 대상 쿠폰 지급 이벤트로 수도권 MZ세대 공략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엠지(MZ)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에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깨비는 약 1천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전남지역 1만 3천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천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성을 갖춘 플랫폼과의 협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포터즈 모집 효과



과도 높일 수 있다”며 “SNS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에게 전남의 매력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우아한형제들’과의 협업을 통해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또 KB국민은행, T맵과도 협력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서포터즈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한 달간은 GS리테일(GS25)과 협력해 전국 1만 8천여 점포에서 디지털 광고를 통해 ‘사랑에 서포터즈’를 홍보하고 있으며, 2030세대 중심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민간 플랫폼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 명 달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양식어가 경영비 절감

162억 들여 히트펌프·인버터 등 친환경·고효율 장비 지원

전라남도가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162억 원을 투입, 친환경에너지 장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히트펌프·인버터 등 친환경·고효율 장비를 양식장에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천534억 원을 지원, 도내 육상양식장 1천 5개소에 1천630대를 보급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의 잔열을 전기의 힘으로 모아 양식장 수온을 조절하는 장치로, 기존 기름보일러 대비 난방비를 최대 62%를 절감할 수 있다. 인버터는 해수면 높이 변화에 따라 펌프 속도를 자동 조절,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전기요금을 약 15%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상양식어업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장비를 보급,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어촌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탄소저감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성과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인버터를 도입한 결과 연간 약 1만 1천 톤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